

##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유 성 경<sup>†</sup>

심 해 원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상담자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상담자 자기 대화 범주와 차원을 보다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분하기 위해 Nutt-Williams와 Hill(1996)의 평정 기준 및 Morran, Kurpius와 Brack(1989)의 사고 범주 목록을 참조하여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기 대화 평정 목록에 근거하여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자기 대화 전체 빈도가 높았고, 개입과 관련하여 상담자가 특수한 행동의 과정을 밝거나 특수한 치료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자기 지시 형태의 자기 대화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 과정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성찰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상담자 나름대로 계획이나 의도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언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 자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상담자, 자기 성찰, 자기 대화, 상담자 전문성 발달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재임교원 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음.

† 교신저자 :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공부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길을 가고 있다. 상담 대중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 상담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상담자 전문성 문제라 할 수 있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이재창(1996)은 상담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가 전문화되어야 하며, 상담자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 현실을 돌아볼 때 상담자 전문성 고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와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이제까지 상담자 교육은 주로 상담이론과 상담기법, 특히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상담자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자들은 알아차리기, 상담 계획 및 사례 관리, 사례 이해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수정, 1999). 이는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기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상담자들이 세부적인 상담 반응 기술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법들을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상담을 진행해 나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기홍, 1994).

상담자 자기 성찰이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은 상담자 발달 이론가들에 의해서도 누차 강조되어 오고 있다(유성경, 2002). 초심 상담자로부터 상

담 대가로의 상담자 발달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상담자가 상위 발달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상담자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할 때 전문성 발달은 일어날 수 없으며 정체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Nelson과 Neufeldt(1998)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에서 상담 기술만을 기계적으로 숙달시키면 진정한 상담자 발달을 간과하게 되고, 이론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할 때 빠르고 다양한 사회 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 기술 및 이론을 상담자 자신의 성찰을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성찰적 상담 슈퍼비전(reflective counseling supervision)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Neufeldt, Karno, & Nelson, 1996; Ward & House, 1998).

성찰적 사고 과정은 현재(또는 과거)에 일어나고 있는(일어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과 결론을 얻게 되며 미래 행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복잡한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이루어진다(Schon, 1983). 상담과정에서 상담자 인식 문제는 상담 회기 중에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 감정과 감각에 대해, 혹은 내담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과 내적인 세계에 대해 예민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문제(김계현, 1998; 손진희, 2001; Corey, 1996)로서 상담 과정 중 상담자 내적 대화(internal dialogue) 혹은 자기 대화(self-talk) 주제(Kurpius, Benjamin, & Morran, 1985; Morran, Kurpius, &

Brack, 1989; Nutt-Williams & Hill, 1996)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상담자의 자기 대화는 상담자의 인지 과정을 관찰 가능한 언어적인 표상으로 나타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상담자 자기 대화란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 내면에서 진행되는 대화내용으로서 상담자가 구체적인 언어적, 행동적 개입에 앞서 어떠한 자기 성찰을 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제까지 상담자 성찰과 관련된 연구들이 인지 과정에 대한 직접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문헌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상담자 자기 대화는 인지 과정을 표상하는 관찰 가능한 변인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변인이다.

상담자 자기 대화 주제는 상담자 불안 및 인지와 관련된 연구들(Ellis, 1962; Goldfried & Sobocinski, 1975)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 불안과 관련된 자기 대화를 많이 하는 상담자들은 자기 평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 이것이 상담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Ellis, 1962). 즉 상담자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되면 내담자 언어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담자 자신의 자기 평가적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담자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자기 대화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저해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방법들이 제시되었다(Beck, 1976; Ellis, 1962; Goldfried, 1979). 이후 상담자 자기 대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계적인 자기 지시 전략(self-instruction strategy)을 가르침으로써 상담자 자기 대화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상담 수행에 있어서 습득된 전략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Kurpius, Benjamin, & Morran, 1985; Richardson & Stone, 1981).

상담자 자기 대화가 상담 회기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기 대화와 상담 과정에 대한 지각들 간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Nutt-Williams & Hill, 1996). 연구 결과 상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내담자 반응에 대한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고 내담자 반응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과잉 지각으로 연결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찰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상담자가 자신이 다루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피하게 되면 성급한 마무리(premature closure)를 하게 되고, 성급한 마무리를 반복하다 보면 거짓 발달을 이루게 된다고(pseudo development) 주장함으로써 불안이 자기 성찰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자기 슈퍼비전(self supervision) 효율성을 강조하는 Morrisette(2002)도 상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방식에 매달리다보면 자기 성찰에 저해 요인이 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상담자 자기 대화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핵심 기제인 자기 성찰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 자기 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에 적용한다면 실제 상담 사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기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상담자들 교육 요구(문수정, 1999)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인지 기술 측면에서 자기 대화를 분석하고 상담자

인지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한 연구(류진혜, 1999) 및 사이버상담에서의 상담 경력별 자기 대화 차이를 분석한 연구(심혜숙, 이현진, 2003) 외에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자 자기 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자기 대화 범주와 차원을 보다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분하기 위해 상담과정에 반영된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을 만들어 타당화 한 뒤,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별로 상담자 자기 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 대화 양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전공으로 재학 중이면서 대학 상담소에서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수련생 및 상담관련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로 15명의 상담자들을 선정하였다. 각 수준에 대한 기준은 상담 경력에 따른 초보, 중간, 숙련 상담자의 세 집단 간에 상담 발달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던 심홍섭(1998)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경력적은 상담자는 상담 관련 석사과정에 있으면서, 상담 경험이 2학기 미만인 15명, 경력중간 상담자

는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받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1~5년 상담 경험을 가진 15명, 경력많은 상담자는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5년 이상 상담 경험을 가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세 집단에게 우선 전화와 구두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연구에 필요한 자료(실시절차 안내문, 질문지 세트, 자기 대화 기록용지, 녹음테이프)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연구 자료를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협조한 상담자들은 경력적은 상담자 13명, 경력중간 상담자 13명, 경력많은 상담자 8명으로서, 이들로부터 회수된 자료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대상 총 34명 중 남자가 3명, 여자가 31명으로 여자가 약 91%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연령 평균은 30.0세이고, 표준편차는 4.8이었다. 연령 대를 살펴보면 20대가 18명, 30대가 15명, 40대가 1명으로 2~30대가 전체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요 상담 방식을 살펴보면, 정신역동이 3명, 인간중심이 5명, 절충이 25명, 기타가 2명으로 약 74% 상담자가 절충적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적은 상담자 집단은 총 13명 모두 여자였고, 평균 연령은 27.1세이고 표준편차 4.2세였다. 주요 상담 방식은 인간중심이 2명, 절충이 9명, 기타가 2명으로 약 69% 상담자가 절충적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중간 상담자 집단은 총 13명 중 남자가 2명, 여자가 1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9.6세이고 표준편차 3.6세였다. 주요 상담 방식은 정신역동이 1명, 인간중심이 2명, 절충이 10명으로 약 77% 상담자가 절충적 상

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은 총 8명 중 남자가 1명, 여자가 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5.5세이고 표준편차 2.5세였다. 주요 상담 방식은 정신역동이 1명, 인간중심이 1명, 절충이 6명으로 75% 상담자가 절충적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도구

### 상담자 경력 수준 질문지

상담자 경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경험, 상담 경험 및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등을 설문하였다.

###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의 실제 전문성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심홍섭(1998)이 제작한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대화기술 10문항(예, 내담자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응한다), 사례이해 11문항(예,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이해한다), 알아차리기 9문항(예,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상담계획 11문항(예, 내담자 행동 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인간적·윤리적 태도 9문항(예,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 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의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에서 4까지(1=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4=상당히 일치한다) 4점 Likert 척도이고 총점은 최고 200점에서 최저 50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영역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 영역 순으로

.83, .84, .86, .85, .78 이었고 발달 수준 총점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하위영역별 Guttman 반분신뢰도 계수는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 영역 순으로 .82, .81, .86, .72 이었고 발달 수준 총점 반분신뢰도 계수는 .93 이었다.

## 연구 절차

###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 개발<sup>1)</sup>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Nutt-Williams와 Hill(1996)의 연구와 Morran 등(1989)에서 사용된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기준 및 범주 목록들을 참고로 하여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예비 목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개발 된 상담자 대화 평정 목록이 한국 상담자들에게도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전공 수련생 네 명을 대상으로 상담자 자기 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방법은 Nutt-Williams와 Hill(1996), 국내 연구(류진혜, 1999; 심혜숙, 이현진, 2003)에서도 사용된 생각 나열하기 (Thought Listing) 기법(Cacioppo & Petty, 1981)이었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상담 회기(3 혹은 4 회기)를 녹음 한 뒤, 24시간 이내에 녹음 된 테이프를 처음부터 20여분 간 들은 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각각 상담자 반응에 멈춰서

1) Nutt-Williams와 Hill(1996)의 자기 대화 평정 기준, Morran 등(1989)의 사고 범주 목록,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예비목록을 비롯한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 개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혜원(2004). 상담자 발달 및 불안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20-30.”에 수록되었음.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대화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담자 반응 40까지 자기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상담자 반응 한 개에 대한 자기 대화는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상담자 자기 대화의 목록을 연구자와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이상 상담 및 상담 슈퍼비전 경력을 가진 전문 상담자와 협동 작업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정, 보완된 목록을 최종적으로 2 명의 전문 상담자가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예비 목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예비검사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 상담자 자기 대화 기록

연구에 참여하는 상담자들은 우선, 상담회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담자들은 상담자 경력 수준 질문지 및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신의 상담 사례 중 3 내지 4회기에 있는 상담 회기를 선정하여 상담 과정을 녹음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자기 대화를 측정하였다.

상담자 자기 대화 측정하기 위해 상담자들은 자신의 상담 회기(3회기 혹은 4회기)를 녹음 한 뒤, 24시간 이내에 녹음 된 테이프를 처음부터 시작하여 20여분 간 들은 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각각 상담자 반응에 멈춰서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대화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담자 반응 40까지 자기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상담자 반응 한 개에 대한 자기 대화는 한 개 이상에서 네 개 이하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상담자 자기 대화 내용 평정은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이 실시하였다. 이들은 평정 전에 자기 대화 평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읽고 숙지한 뒤 두 개 연습용 자기 대화 내용으로 함께 연습하였다. 상담자 반응 한 개에 나열된 자기 대화 각각에 대해 모두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자간에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자들과 본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평정 메뉴얼을 더 깊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Cohen(1960) Kappa(K)지수를 사용하여 평정자간 일치율 .78을 확보한 뒤 평정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무기명으로 제시된 자기 대화 내용 평정에 착수하였다. 평정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일치시켜 나갔는데, 불일치 개수는 평균 2 ~ 3개였고 1차 토론을 통해 일치되었다.

#### 분석 방법

우선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 전문성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사례수가 다르고 적을 경우 집단 간 동분산성(homogeneity of variance)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Maxwell & Delaney, 2004)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이 분석에서는 Welch's 분산분석(Welch's ANOVA)과 Games-Howell 사후 분석을 사용하였다.

상담자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라 자기 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기 대화 전체 개수, 네 가지 범주, 열일곱 가지 영역 빈도(frequency)를 산출하였다.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범주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설계(mixed design)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분석으로 짝진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차이 분석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Welch's 분산분석(Welch's ANOVA)과 사후분석으로 Games-Howell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집단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분산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하위 요인인 인간적 윤리적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상세히 기술하면, 전체 전문성 발달 수준에서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18.2) = 5.91, p < .01$ ).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하위 요인인 상담대화

기술( $F(2, 19.3) = 8.12, p < .01$ ), 사례이해( $F(2, 18.7) = 3.58, p < .05$ ), 알아차리기( $F(2, 19.1) = 6.62, p < .01$ ), 상담계획( $F(2, 19.3) = 7.46, p < .01$ )에서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적 윤리적 태도에 있어서는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8.5) = 1.56, p > .05$ ).

Welch's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전문성 발달 수준과 그 하위 요인들 각각에서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중 어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집단 간 동분산성을 가정할 수 없고, 유의 수준을 .05로 유지하기 위해 Games-Howell 사후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전문성 발달 수준에서 경력적은 상담자 집단( $M=130.15, SD=17.04$ )과 경력중간 상담자 집단( $M=136.23, SD=14.15$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두 집단 모두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M=154.12, SD=14.89$ )보다는 유의수준 .05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 요인인 상담대화기술에서는 경력적은 상담

표 1. 집단에 따른 영역별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평균 및 표준 편차

	경력적은 상담자(N=13)		경력중간 상담자(N=13)		경력많은 상담자(N=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발달수준	130.15	17.04	136.23	14.15	154.12	14.89
상담대화기술	25.15	3.51	28.38	4.23	31.00	2.98
사례이해	29.69	4.87	29.54	4.20	34.13	3.98
알아차리기	22.85	3.48	24.92	4.21	28.25	3.11
상담계획	25.77	4.53	26.07	3.40	31.75	3.58
인간적윤리적태도	26.69	3.33	27.31	2.75	29.00	2.73

\*\*  $p < .01$  \*  $p < .05$

표 2. 집단에 따른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분산분석

분산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사후검증
전체발달수준					
집단간	2	2920.65	1460.33	5.91**	적, 중 < 많
집단내	18.2	7442.86	240.09		
상담대화기술					
집단간	2	177.85	88.67	8.12**	적 < 많
집단내	19.3	424.76	13.70		
사례이해					
집단간	2	124.57	62.28	3.58*	중 < 많
집단내	18.7	606.88	19.58		
알아차리기					
집단간	2	144.62	72.31	6.62**	적 < 많
집단내	19.1	426.12	13.75		
상담계획					
집단간	2	208.33	104.16	7.46**	적, 중 < 많
집단내	19.3	474.73	15.31		
인간적 윤리적 태도					
집단간	2	26.93	13.47	1.56	
집단내	18.5	275.53	8.89		

주. 적. 경력적은 중. 경력중간 많. 경력많은  
 \*\* p < .01 \* p < .05

자 집단(M=25.15, SD=3.51)이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M=31.00, SD=2.98)보다 유의수준 .05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례이해에서는 경력중간 상담자 집단(M=29.54, SD=4.20)이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M=34.13, SD=3.98)보다 유의수준 .05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알아차리기에서는 경력적은 상담자 집단(M=22.85, SD=3.48)이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M=28.25, SD=3.11)보다 유의수준 .05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계획에서는 경력적은 상담자 집단(M=25.77, SD=4.53)과 경력중간 상담자 집단(M=26.07, SD=3.40)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두 집단 모두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M=31.75, SD=3.58)보다는 유의수준 .05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간적 윤리적 태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후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후 분석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경력적은 상담자와 경력많은 상담자 그리고 경력중간 상담자와 경력많은 상담자 집단 간에는 전문성 발달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경력적은 상담자와 경력중간 상담자 집단 간에는 전문성 발달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 문제인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경력에 따라 상담자 집단을 분류하기 보다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총점을 사용하여 상담자 집단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총점을 사용하여 하위 20%(발달 수준 총점 122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위 발달 집단, 상위 20%(발달 수준 총점 1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위 발달 집단, 그리고 나머지를 중간 발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차이 분석**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차이 분석에서는 중간 발달 집단을 제외하고 하위 발달 집단과 상위 발달 집단 두 집단을 사용하였는데, 하위 발달 집단 7명은 모두 여자였고, 연령 평균은 29.7세, 표준편차 5.4세였다. 주요 상담 방식은 인간중심 2명, 절충 3명, 기타 2명이었다. 상위 발달 집단 7명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었고, 연령평균은 33.6세, 표준편차 4.4세였다. 주요 상담 방식은 정신역동 1명, 인간중심 1명, 절충 5명이었다.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빈도 분석**

하위 발달과 상위 발달 집단 간 자기 대화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집단 자기 대화 전체, 네 가지 범주, 열일곱 가지 영역 빈도(frequency)를 산출하였다. 각 집단 자기 대화 전체 및 네 가지 범주 빈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각 집단 자기 대화 네 가지 범주 하위 영역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범주 차이 분석**

하위 발달과 상위 발달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범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설계(mixed design)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자기 대화 범주에 대한 반응은 빈도이고, 빈도 분포는 일반적으로 정적 편포(positive skewness)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빈도 분포 정상성(normality)이 검정되어야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콜모고르프 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자기 대화 D 범주[KS=.283,  $p < .010$ ]를 제외하고 자기 대화 전체[KS=.092,  $p > .150$ ], A 범주[KS=.131,  $p > .150$ ], B 범주[KS=.149,  $p > .150$ ], C 범주[KS=.193,  $p > .150$ ]에서 정상성이 검정되었다. 자기 대화 D 범주는 자기 대화 초점이 상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포괄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기타’ 범주로서 상담자 자기 대화에서 매우 적은 빈도(하위 발달 집

표 3.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전체 및 네 가지 범주 빈도

	하위발달수준(N=7)					상위발달수준(N=7)				
	A	B	C	D	합(전체)	A	B	C	D	합(전체)
빈도	108	180	33	10	331	144	225	131	11	511
비율(%)	32.6	54.4	10.0	3.0	100	28.2	44.0	25.6	2.2	100

주. A. 자기 B. 내담자 C. 상담 계획이나 의도 D. 기타

표 4.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네 가지 범주 하위 영역 빈도

	하위발달수준(N=7)					상위발달수준(N=7)				
	A1	A2	A3	A4	A5	A1	A2	A3	A4	A5
A 범주										
빈도	26	22	0	34	6	5	17	2	99	21
비율(%)	24.1	20.4	0	31.5	24.1	3.5	11.8	1.3	68.8	14.6
B 범주	B1	B2	B3	B4	B5	B1	B2	B3	B4	B5
빈도	0	100	74	2	4	3	88	121	4	9
비율(%)	0	55.6	41.1	1.1	2.2	1.3	39.1	53.8	1.8	4.0
C 범주	C1	C2	C3	C4	C5	C1	C2	C3	C4	C5
빈도	15	13	1	4	0	52	27	11	22	19
비율(%)	45.5	39.4	3.0	12.1	0	39.7	20.6	8.4	16.8	14.5
D 범주	D1		D2			D1		D2		
빈도	0		10			0		11		
비율(%)	0		100			0		100		

주. A1. 불안이나 자기 의심 A2. 교정적 자기 피드백 A3. 긍정적 자기 피드백 A4. 내담자에 대한 반응 및 기대 A5. 자기 질문 B1. 행동 관찰 B2 내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 B3. 요약 공감 평가 B4. 관련성 B5. 추론이나 가설 C1. 상담 범위 및 계획 수립 C2. 정보수집 C3. 지지 C4. 명료화 C5. 통찰 및 변화 유도 D1. 자기 점검 D2. 외적 요인

단 3%, 상위 발달 집단 2%)를 차지하고 있어 분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위 발달 집단과 상위 발달 집단 간 자기 대화 세 가지 범주 차이를 분석한 혼합설계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분석을 위해 단변량

(univariate)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혼합 설계 집단 내 요인에 대해서 자기 대화 범주 간 차이점수 동분산성(homogeneity of treatment-difference variance: Sphericity)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Mauchly's Sphericity

표 5.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네 가지 범주 차이 분석

분산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집단	1	762.88	762.88	321.58**
오차항(집단)	12	598.86	49.88	
범주	2	2124.62	1062.31	8.87**
범주*집단	2	160.33	80.17	.67
오차항(범주)(범주*집단)	24	2873.71	119.74	

\*\*  $p < .01$

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자기 대화 범주 간 차이점수 동분산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W=.961$ ,  $Chi-Square(2)=.439$ ,  $p-value=.803 > .05$ ).

분석 결과 집단(하위 발달 집단과 상위 발달 집단)과 범주(자기 대화 세 가지 범주)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24)=.670$ ,  $p > .05$ ). 따라서 집단과 범주 각각의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 발달 집단과 상위 발달 집단 간 자기 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2)=321.584$ ,  $p < .01$ ). 또한 자기 대화 세 가지 범주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4)=8.872$ ,  $p < .01$ ).

자기 대화 세 가지 범주 간 유의한 주효과 때문에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요인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해 짝진  $t$  검증(paired  $t$ -test)을 실시하였고 Bonferroni 방식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0167(.05/3)을 사용하였다.  $t$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 대화 B 범주( $M=28.93$ ,  $SD=10.65$ )는 자기 대화 A 범주( $M=18.00$ ,  $SD=8.31$ ) 및 자기 대화 C 범주( $M=11.71$ ,  $SD=12.47$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 대화 A 범주와 C 범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 범주를 ‘자기’ 범주나 ‘상담 계획이나 의도’ 범주 보다 유익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 효과 분석에서 발달 수준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위 발달 집단( $M=73.00$ ,  $SD=11.27$ )이 하위 발달 집단( $M=42.29$ ,  $SD=13.16$ )에 비해 자기 대화 전체 빈도가 높았다. 즉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전문성 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대화 하위 범주 즉 A, B, C 각각에서도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자기 대화 빈도를 많이 보일 것인지 알아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각 집단 사례수가 적고, 동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아 이를 보정하기 위해 Welch's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 대화 C 범주에서 상위 발달 집단( $M=18.71$ ,  $SD=13.98$ )이 하위 발달 집단( $M=4.71$ ,  $SD=5.22$ )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표 6. 자기 대화 범주 간 차이 검증

자기대화범주	평균빈도	표준편차
A	18.00	8.31
B	28.93	10.65
C	11.71	12.47
집단비교	사례수	$t$
A-B	14	-2.919*
A-C	14	1.572
B-C	14	3.849*

주. A. 자기 B. 내담자 C. 상담 계획이나 의도 D. 기타

\*  $p < .0167$

표 7.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세 가지 범주 차이 검증

자기대화범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A	하위발달집단	7	15.43	6.00	-1.174
	상위발달집단	7	20.57	9.91	
B	하위발달집단	7	25.71	12.16	-1.142
	상위발달집단	7	32.14	8.59	
C	하위발달집단	7	4.71	5.22	-2.481*
	상위발달집단	7	18.71	13.98	

주. A. 자기 B. 내담자 C. 상담 계획이나 의도 D. 기타

\*  $p < .05$

보였다( $t=-2.481, df=7.6, p < .05$ ). 그러므로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상담 과정에서 상담 계획이나 의도와 관련된 자기 대화를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대화 A 범주에서는 상위 발달 집단( $M=20.57, SD=9.91$ )이 하위 발달 집단( $M=15.43, SD=6.00$ )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기 대화 B 범주에서도 상위 발달 집단( $M=32.14, SD=8.59$ )이 하위 발달 집단( $M=25.71, SD=12.16$ )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범주 하위 영역 차이 분석

상위 발달 집단과 하위 발달 집단 간에 자기 대화 범주 각각의 하위 영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에서는 상담자들이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결측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정상성 검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자료는 빈도 자료로서 여기서 보이는 결측치는 상담자들이 해당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인 자료(예, 질문지)에서 보이는 결측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분석에서는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적으로 비교하였다.

**자기 대화 A 범주에 대한 차이:** 자기 대화 A 범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A4 영역에서 상위 발달 집단( $M=14.14, SD=6.23$ )이 하위 발달 집단( $M=4.86, SD=2.12$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반응 및 기대에 대한 자기 대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A1 영역에서는 하위 발달 집단( $M=3.71, SD=3.73$ )이 상위 발달 집단( $M=.71, SD=1.50$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위 발달 집단이 상위 발달 집단에 비해 불안이나 자기 의심에 대한 자기 대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대화 B 범주에 대한 차이:** 자기 대화 B 범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B3 영역에

표 8.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A 범주 하위 영역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대화 영역	상담자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율(%)
A1	하위발달집단	7	3.71	3.73	24.1
	상위발달집단	7	.71	1.50	3.5
A2	하위발달집단	7	3.14	2.67	20.4
	상위발달집단	7	2.43	4.72	11.8
A3	하위발달집단	7	.00	.00	0
	상위발달집단	7	.29	.49	1.3
A4	하위발달집단	7	4.86	2.12	31.5
	상위발달집단	7	14.14	6.23	68.8
A5	하위발달집단	7	3.71	2.69	24.1
	상위발달집단	7	3.00	1.73	14.6

주. A1. 불안이나 자기 의심 A2. 교정적 자기 피드백 A3. 긍정적 자기 피드백  
A4. 내담자에 대한 반응 및 기대 A5. 자기 질문

표 9.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B 범주 하위 영역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대화 영역	상담자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율(%)
B1	하위발달집단	7	.00	.43	0
	상위발달집단	7	.43	.79	1.3
B2	하위발달집단	7	14.29	6.78	55.6
	상위발달집단	7	12.57	5.38	39.1
B3	하위발달집단	7	10.57	6.24	41.1
	상위발달집단	7	17.29	4.69	53.8
B4	하위발달집단	7	.29	.76	1.1
	상위발달집단	7	.57	.79	1.8
B5	하위발달집단	7	.57	.79	2.2
	상위발달집단	7	1.29	1.89	4.0

주. B1. 행동 관찰 B2 내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 B3. 요약, 공감, 평가  
B4. 관련성 B5. 추론이나 가설

서 상위 발달 집단( $M=17.29, SD=4.64$ )이 하위 발달 집단( $M=10.57, SD=6.24$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요약,

표 10. 집단에 따른 자기 대화 C 범주 하위 영역 평균과 표준편차

자기대화 영역	상담자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율(%)
C1	하위발달집단	7	2.14	2.73	45.5
	상위발달집단	7	7.43	6.43	39.7
C2	하위발달집단	7	1.86	3.76	39.4
	상위발달집단	7	3.86	3.24	20.6
C3	하위발달집단	7	.14	.38	3.0
	상위발달집단	7	1.57	1.27	8.4
C4	하위발달집단	7	.57	.79	12.1
	상위발달집단	7	3.14	4.34	16.8
C5	하위발달집단	7	.00	.00	0
	상위발달집단	7	2.71	3.45	14.5

주. C1. 상담 범위 및 계획 수립 C2. 정보수집 C3.지지 C4. 명료화 C5. 통찰 및 변화유도

공감, 평가 영역에 대한 자기 대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대화 C 범주에 대한 차이:** 자기 대화 C 범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C3 영역에서 상위 발달 집단( $M=1.57, SD=1.27$ )이 하위 발달 집단( $M=.14, SD=.38$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지지 자기 대화 빈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이 연구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 기제로 떠오르는 상담자 자기 성찰(reflection)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자 자기 대화(self-talk)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상담자 자기 대화 범주와 차원을 보다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분하기 위해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을 개발하여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에 근거하여 실제 상담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하는 자기 대화를 분석하여 발달 수준에 따라 상담자 자기 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상담자 집단을 교육 및 상담 경력과 자격증 유무에 따라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 많은 세 수준으로 표집 하였으나 세 집단 별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적은과 경력중간 집단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적은과 경력중간 집단 간 전문성 발달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들(손은정, 2001; Kivlighan & Quigley, 1991; Martin, Slemmon, Hiebert, Hallberg, &

Cumming, 1989; Mayfield, Kardash, & Kivlighan, 199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이는 중간 상담자 집단은 전문적 훈련기로의 이행단계를 막 벗어나 대가 모방 단계, 조건적 자율성 단계, 탐구 단계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서 상담 기초를 경직되게 마스터했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상담 스타일을 가지다가 차츰 의적으로 주어진 전문적 스타일을 조정해 가는 상담 스타일을 가지는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Skovholt와 Ronnestad, 1992).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총점을 근거로 상대적인 상위 및 하위 집단으로 나눈 뒤 두 집단의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라 상담자 자기 대화의 사용 및 빈도에서 나타난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자기 대화 전체 빈도가 높고, 개입과 관련하여 상담자가 특수한 행동의 과정을 밟거나 특수한 치료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자기 지시 형태의 자기 대화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류진혜(1999) 연구에서도 숙련 상담자들이 중간 상담자들에 비해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다는 상담 계획이나 의도에 대한 혼자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숙련 상담자들이 초심 상담자에 비해 혼자말 전체 빈도가 높았다.

Schon(1983)은 전문성 발달 핵심 기제는 실천적 지식의 발달이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자기 성찰을 통해 획득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함

으로써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과 결론을 얻게 되며, 그러한 변화들은 이후 상담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과정이 바로 자기 성찰(reflection) 과정이다.

상담자 발달 단계를 제시한 Hogan(1964)과 Loganbill 등(1982)도 가장 상위 단계의 상담자는 원숙한 상담자로서 자율성, 풍부한 통찰, 내면적 안정감, 안정된 동기를 지니게 되고, 융통성이 증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인적 안정감을 갖으며, 환경에서 오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계속 자기를 돌이켜 봄으로써 성장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담자의 자기를 돌이켜 보는 특징이 바로 자기 성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대화 양이 많고, 상담 계획이나 의도와 관련된 내용의 자기 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선행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상위 발달 단계의 상담자들이 자기 성찰 수준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 대화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 범주 가운데 ‘내담자에 대한 반응 및 기대 영역에서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불안이나 자기 의심 영역’에서는 하위 발달 집단이 상위 발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자기 대화의 초점이 ‘자기’라고 해도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라 대화의 내용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즉, 상위

집단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관련된 자신의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활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반면,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상담과정에서 불확실감, 혼란스러움 등의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내담자’ 범주 가운데 ‘요약, 공감, 평가 영역’에서는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말을 명료화하고 요약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 상태를 깊이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상담 계획이나 의도’ 범주 가운데 ‘지지’ 영역에서는 상위 발달 집단이 하위 발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를 지지하고 신뢰롭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의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요약하면,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관련된 자신의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활용하고, 내담자 말을 명료화하고 요약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 상태를 깊이 공감하며, 내담자를 지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의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Skovholt & Ronnestad, 1992) 상담자 자기 성찰 개념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 성찰은 교육학에서 Dewey(1933)가 성찰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그는 “성찰을 통해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갈등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던 경험들이 분명하고, 조화를 이루고, 안정되고, 통합된 경험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성찰 주제가 우리나라 교육학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활발한 연구(고문숙, 1995; 김갑철, 2001; 권정숙, 2002; 박은혜, 1996; 박은혜, 이은화, 1998; 조순목, 1997)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담 분야에서는 자기 성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도 실험적으로 상담자 자기 대화를 통해 자기 성찰의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지만, 이러한 연구가 쌓인다면 이후 자기 성찰 전반적 과정 및 자기 성찰 측정 도구 개발 등의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대화’라는 개념을 통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숙련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언어 반응의 차이(이현아, 이수원, 1997) 및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손은정, 2001)에 대한 연구 외에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상담 기술의 변화 및 인지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상담 과정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을 심화·확대하여 상담자 자기 대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담자 자기 대화 내용은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담 슈퍼비전 교육 내용 요구 분석을 한 문수정(1999) 연구에서도 상위 7위에 속하는 다섯 가지 영역 중 알아차리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두 가지(핵심 메시지 알아차리기,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 과정 알아차리기)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상담자 자기 대화 내용을 활용한 알아차리기 영역에 대한 상담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상담자들 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elson과 Neufeldt(1998)는 상담자 교육에서 의사소통 기술만을 기계적으로 숙달시키면 진정한 상담자 발달을 간과하게 되고, 이론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할 때 빠르고 다양한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 기술 및 이론을 상담자 자신의 성찰을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성찰적 상담 슈퍼비전(reflective counseling supervision)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Neufeldt, Karno, & Nelson, 1996; Ward & House, 1998)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해 가야 할 분야라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 보고식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를 통하여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차이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슈퍼바이저에 의한 평가, 내담자 평가, 상담 사례를 통한 평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

달 수준 집단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 하위 20%를 설정하였다. 이는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가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므로 절대적 비교가 불가능하여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기준(25-30%) 및 사례수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이나 이는 전문성 발달에서 절대적 상, 하위 수준이 아니라는 제한점이 따른다.

두 번째,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상담 회기를 3 내지 4회기로 제한하고, 상담 시작 후 20여분 동안 상담자 반응 1부터 40까지에 대한 자기 대화를 측정하였지만 내담자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성격장애나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 과정은 내담자 특성에 따라 수행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Shanteau, 1992) 상담자 자기 대화 역시 내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내담자 문제 유형 및 심각도, 연령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상담자 내에서도 회기 진행에 따른 자기 대화 양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 중기, 종결기에 따른 상담자 자기 대화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은 상담자 초점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Nutt-Williams와 Hill(1996)은 상담자 자기 대화를 초점 이외에 정서(affect)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Kurpius 등(1985)은 상담자 자기 대화를 가설 형성과 자기 지시 두 범주로 평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자 자기 대화를 초점 차원 이외 다양한 맥락에서 평정하고 나아가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

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 차이가 궁극적으로 상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작용 요인을 들 수 있는데(김영혜, 2000), 이 가운데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대한 영향은 상담 연구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고 많은 연구들이 상담 관계 질이 성공적인 성과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Hartley & Strupp, 1983; Luborsky, Crits-Christoph, Alexander, Margolis & Cohen, 1983).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상담 협력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Scher(1975)는 경험이 적은 상담자 보다 경험이 많은 상담자를 대할 때, 내담자들이 상담 성과를 더 좋게 보고한다고 했다. 이는 경험이 적은 초보 상담자들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판단하려고 하며 훈련 받은 상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반면,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효과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담자 경력 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상담협력관계의 관계를 연구한 홍수현(2001)은 상담자 경력 수준이 직접적으로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다는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상담자 인지·정서 변인 같은 매개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담자 경력 자체가 상담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기 보다는 상담자 경력이 내포하고 있는 경험 수준, 전문성 발달 수준 등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적용해 본다면,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은 상담자 일수록 상담 과정에서 풍부한 통찰과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상담자 나름대로 계획이나 의도를 검토하는 자기 대화를 많이 활용하여 상담 방향을 결정해 가기 때문에 내담자와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상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의 차이가 상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표집 크기가 너무 작고 동질적이어서 다른 상담자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연구방법에서 연구대상을 경력적은, 경력중간, 경력많은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로 15명의 상담자를 선정하였으나 상담자 자기 대화 자료 회수는 경력적은 13명, 경력중간 13명, 경력많은 8명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총점을 기준으로 상,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본 수가 더욱 작아졌다.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절차를 파일럿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그리고 많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고기홍 (1994). 상담면접과정에 대한 상담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문숙 (1995). 유치원 예비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적응 경험이 교사의 반성적 사고 능력과 유아의 문제 해결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철 (2001).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수업반성을 통한 게임 교수 가치관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 19-53.
- 김영혜 (2000). 상담자의 자기강화적 사고와 상담효율성 평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숙 (2002).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및 반성적 사고수준과 교수능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혜 (1996). 반성적 사고와 유아 교사 교육. 유아교육연구, 16(1), 175-192.
- 박은혜, 이은화 (1998). 반성적 사고 신장을 위한 교육 실습 지도. 교과교육학연구, 2(1), 187-204.
- 손은정 (2001).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손진희 (2001).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 이현진 (2003).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자기 대화 및 가설 형성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1-16.
- 유성경 (2002). 상담자에 대한 이해. 청소년상담수퍼비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재창 (1996).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 1-26.
- 이현아, 이수원 (1997).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숙련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57-180.
- 조순목 (2002). 수업 반성을 통한 초등 교사의 체육교사활동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미 (1987).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수현 (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acioppo, J. T., & Petty, R. E. (1981). *Social psychological procedures for cognitive responses assessment: The thought-listing technique*. In T. V. Merluzzi, C. R. Glass, & M. Gen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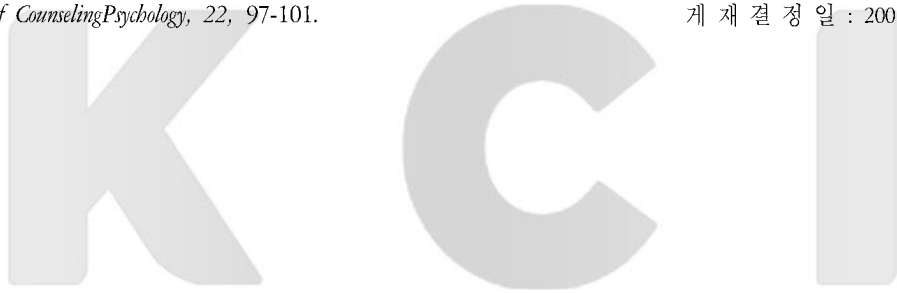
- (Eds.), *Cognitive assessment* (309-342).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37-46.
- Corey, G. (199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th ed.). Pacific Grove, New Jersey: Brooks/Cole.
- Dewey, J. (1933). *How we think*. Boston: Health and Company.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Secaucus, New Jersey: Lyle Stuart.
- Goldfried, M. R. (1979). Anxiety reduction through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In P. C. Kendall & S. D. Hollon (Ed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Theory, research, procedures*. New York: Academic Press.
- Goldfried, M. R., & Sobocinski, D. (1975). The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emotional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04-510.
-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logy. In M. Masling (Ed.), *Empirical Studies of Counseling Psychoanalytic Theories* (pp. 1-27). HJ: Analytic Press.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Kivlighan, D. M., & Quigley, S. T. (1991). Dimensions used by experienced and novice group therapists to conceptualize group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15-423.
- Kurpius, D. J., Benjamin, D., & Morran, D. K. (1985). Effects of teaching a cognitive strategy on counselor trainee internal dialogue and clinical hypothesis form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63-271.
- Loganbill, C. R., Hardy, C. V.,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Alexander, H., Margolis, M., & Cohen, M. (1983). Two helping alliance methods for predicting outcome of psychotherapy: A counting sign vs. a global rating meth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1, 400-491.
- Martin, J., Slem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 A. L. (1989). Conceptualization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95-400.
- Maxwell, S. E., & Delaney, H. D. (2004). *Designing experiments and Analyzing data: A model comparison perspective* (2nd). Law Erlbaum Associates, Mahwah, New Jersey.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D. M. Jr.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504-514.
- Morran, D. K., Kurpius, D. J., & Brack, G. (1989).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unselor self-talk categor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505-510.
- Morrisette, P. J. (2002). *Self-Supervision: A primer for counselors and helping professionals*. New York: Brunners-Routledge.
- Nelson, M. L., & Neufeldt, S. A. (1998). The

-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70-89.
-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301-309.
- Nutt-Williams, E. S., & Hill, C. E.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talk and therapy process variables for novice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70-177.
- Richardson, B., & Stone, G. L. (1981). Effect of a cognitive adjunct procedures within a micro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168-175.
- Scher, M. (1975). Verbal activity, sex, counselor experience, and succes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97-101.
-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Shanteau, J. (1992). The psychology of experts: an alternative view. In G. Wright & F. Bolger (Eds.), *Expertise and decision support*. New York: Plenum Press.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Ward, C. C., & House, R. M. (1998). Counseling supervision: A reflective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23-11.

원고접수일 : 2005.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21

게재결정일 : 2005. 11. 5



## The Differences of Self-Talks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s

Sung-Kyung Yoo

Hae-Won Sh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 and content of counselors' self-talks in terms of the levels of expertise. Counselors' self-talks were defined as the counselors' internal dialogue for their interventions in the course of counseling sessions. The self-talk coding system was adopted from the Nutt-Williams and Hill's (1996) coding system and the Morran, Kurpius, and Brack's (1989)'s self-talk categorie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4 counselors; 13 beginning level, 13 middle level, and 8 advanced level in counseling experience. The counselors were asked to list their thoughts for their first 40 verbal responses during the session within 24 hours after the session finished. The counselors were also asked to choose either the third or fourth session. Data analysis found that counselors at the advanced level utilized more self-talks as compared to the novice counselors. In addition, the counselors at the advanced level reported more self-talks on counseling plans and intentions than the novice counsel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unselors at the advanced level tend to reflect the counseling process more than the novice counselors. Advanced counselors also seemed to have a better sense of how to guide the counseling process with more consideration of counseling plans and intervent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studies on counselors' reflection should be expanded with an inclusion of counselors' affective awareness and clients' responses. Also, the effects of the counselors' self-talks could be measured by clients' ratings on the session impac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conclude this paper.

*Key words* : counselor, reflection, self-talks, development of expertise

부 록. 상담자 자기 대화 평정 목록

초 점(focus)	내 용(content)	코드
A. 자기 상담자 자신이 나 자신의 언 어반응 및 태 도와 관련된 자기 대화	1. 불안이나 자기 의심 전반적으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확신이 부족하다는 상담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태	A1
	2. 교정적 자기 피드백 교정적인 행동을 위한 가능성을 주는 구체적인 상담자 행위 문제를 규 명하는 형태	A2
	3. 긍정적 자기 피드백 상담자 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스스로 강화를 제공하는 형태	A3
	4. 내담자에 대한 반응 및 기대 내담자를 향한 상담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 생각, 기대, 그리 고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는 형태	A4
	5. 자기 질문 개입과 관련하여 자신을 향한 상담자 질문에 관한 형태	A5
B. 내담자 내담자나 회기 내에서 내담자 가 말하거나 행한 것과 직 접적으로 관련 된 자기 대화	1. 행동 관찰 내담자의 외현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집중된 생각	B1
	2. 내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 내담자나 내담자 상황(가족 포함)에 관한 질문을 드러내는 형태	B2
	3. 요약, 공감, 평가 내담자가 드러낸 것을 명료화, 요약, 정리하거나 내담자의 쪼개진 얘기 를 통합하는 형태 및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관한 형 태	B3
	4. 관련성 내담자 경험이나 특징을 상담자를 포함한 다른 것들과 관련시키는 형태	B4
	5. 추론이나 가설 내담자와 직접적으로 나눈 얘기 이상의 내담자에 관한 잠정적인 직감이 나 가설에 관한 형태	B5

부 록. 계속

초점(focus)	내용(content)	코드
C. 상담 계획 이나 의도 개입과 관련하여 상담자가 특수한 행동 과정을 밟거나 특수한 치료적 기술을 사용하 기 위한 자기 지시에 관련된 자기 대화	1. 상담 범위 및 계획 수립 상담 목표 설정과 전체적인 상담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자기 지시와 관련된 형태	C1
	2. 정보수집 내담자 과거경험, 현재 상태, 미래계획 등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 지시와 관련된 형태	C2
	3. 지지 지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간 신뢰감이나 친밀감(rapport)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 지시와 관련된 형태	C3
	4. 명료화 내담자의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모순 되는 이야기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기 지시와 관련된 형태	C4
	5. 통찰 및 변화 유도 내담자 태도, 행동, 감정 밑에 깔린 원인이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도록 돕거나 내담자다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기술, 행동,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 지시와 관련된 형태	C5
D. 기타 상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 련되지 않는 포괄적인 자기 대화	1. 자기 점검 상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상담자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자각을 표현하는 형태	D1
	2. 외적 요인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상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에 관한 형태	D2